

보도해명자료

(’17. 1. 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韓, 이스라엘 FTA 협상서 서안 제품 자국산 인정
기로’ (’17.1.27, 한국일보)

1. 기사내용

- 정부는 올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-이스라엘 FTA 협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영토분쟁 지역 생산 제품을 이스라엘産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“한국이 이스라엘 FTA 협상에서 서안 제품을 이스라엘産으로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”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
- 정부는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 생산제품을 이스라엘産으로 인정하기로 입장을 정한 바 없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

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권혁우 과장(044-203-5750)

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고상미 과장(044-203-5820)